

# “송정역 주차빌딩·광주역 복합개발 조기 추진을”

이용섭 시장, 코레일 방민철 대표 이용객 편의 제공 주요 현안 건의  
광주역~송정역 5G기반 실감콘텐츠 구축 셔틀열차 지속 운영도

호남 KTX와 수서SRT 개통 이후 급증한 이용객 수요에 따른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신축과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광주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코레일 본사를 방문, 손병석 사장을 만나 광주역 철도 이용객 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 그리고 도심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조기 신축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지속 운영 ▲5G기반 실감콘텐츠 구축에 셔틀열차 활용 ▲광주역 복합개발사업의 참여 등에 코레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신축사업은 주변 교통혼잡과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코레일에서 370억원을 투입해 6층, 1600면 규모로 설계중인 사업이다. 이 시장은 시민과 광주송정역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 사업의 조기 착공 및 완공을 건의했다.

또한, 동구와 북구 주민들의 광주송정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광주역~송정역 셔틀열차의 향후 지속적 운영과 셔틀열차와 고속열차의 환승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셔틀열차 운행시간 조정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어 셔틀열차에 VR·AR 등 실감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광주 관광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5G기반 스마트 관광로드사업도 제안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실감콘텐츠 육성정책과 맞물려 셔틀열차에 첨단기술 및 콘텐츠 산업 접목을 통해 광주 관광상품의 다양화가 이뤄져 열차 이용객의 증가가 기대된다.

이밖에 광주시가 광주역 주변 도심재생을 위해 추진중인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광주역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도 건의했

다. 광주역 복합개발사업은 광주역의 철도 기능을 유지하면서 역내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해 발생하는 유휴 부지를 활용, 공공투자 및 민간자본을 투입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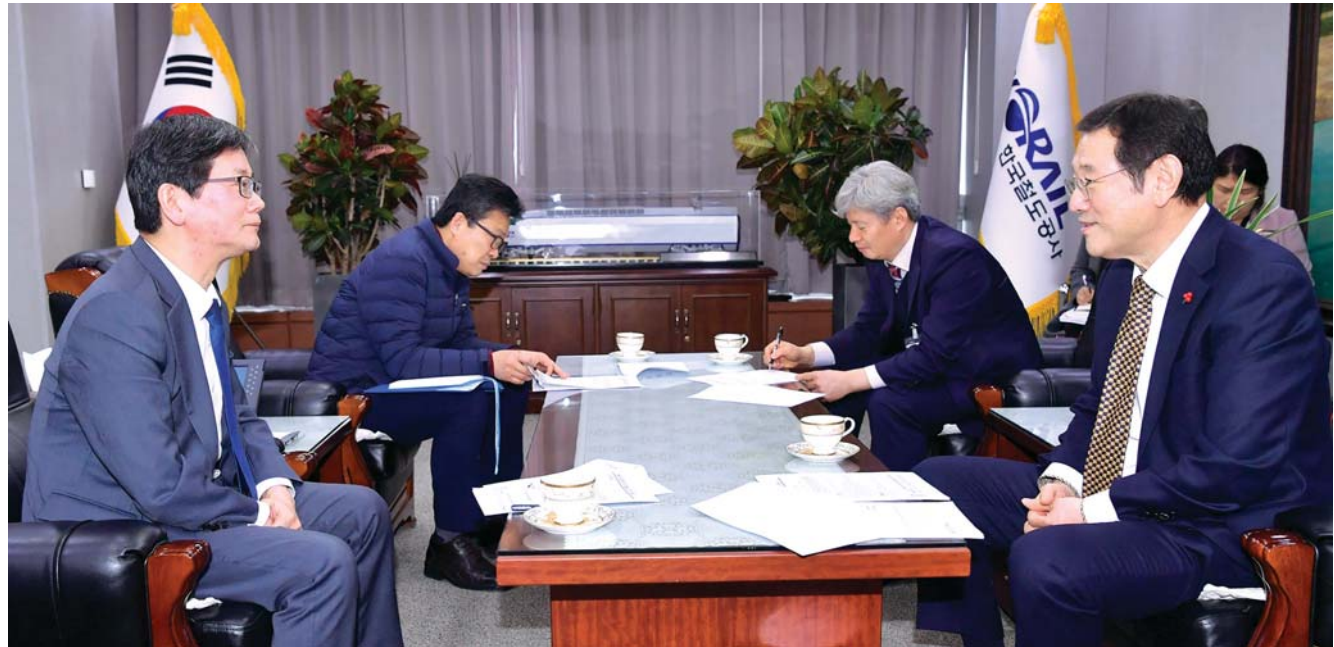
광주시는 현재 코레일과 공동으로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개발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광주송정역 주차빌딩은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설계와 공사시행 등의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광주역~광주

송정역 셔틀열차는 국토부와 오는 2022년까지 내구연한 연장을 합의했고, 이후 연장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손 시장은 또 “5G 기반 스마트 관광로드 셔틀열차 활용 건은 광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광주역의 열차 운행 지원 시설은 광주송정역으로 가급적 일원화하고, 광주역은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광주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오후 대전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를 방문해 손병석 코레일 사장에 송정역 주차빌딩 조기 신축 등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 대흑산도에 게이트볼장·여수 하화도에 특산물 판매장

행안부, 섬 정주여건 개선 291개 사업 1518억 투자

신안 대흑산도에 오는 2022년까지 게이트볼 경기장이 건립된다. 여수 하화도에는 올 연말까지 특산물 판매장과 게스트룸이 들어서고, 여수 금오도 복지회관은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소득증대, 관광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올해 291개 사업에 총 1518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1988년부터 수립·시행하는 도서종합개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사업비의 39%에 해당하는 597억원 (179개 사업)이 전남 지역 도서에 투입된다.

행안부가 최근 확정된 ‘제 4차 도서종합

개발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291개 사업은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119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해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복지·문화·의료·교육, 교통개선, 관광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마을환경 개선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복지·문화·의료·교육 분야 사업으로는 흑산면 대흑산도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 여수 남면 금오도 복지회관 정비사업 등 10가지 사업에 21억원이 투입된다.

대흑산도 게이트볼 경기장 건설은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된다. 여수 금오도 복지회관 정비사업은 2년에 걸쳐 총 4억원을 투자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된다.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사업으로는 여수시 화정면 특산물 매장 및 게스트룸 설치사업을 비롯해 132개 사업에 495억원이 배정됐다.

문어와 미역 등이 유명한 여수 하화도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업비 2억5000만원이 투입돼 연말까지 특산물 판매장과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룸이 건립된다.

교통개선 사업으로 정부는 충남 당진시 석문면 대·소난지도 연도교 건설사업에 5년간 352억원을,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건설사업에 오는 7년간 27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정부는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 3조100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18년 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 2027년까지 1256개 사업에 총 1조5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석면 제거 학교 13곳 ‘적합’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한 학교 13곳을 대상으로 비산 석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해체나 제거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로 건축물 파쇄, 개·보수 등으로 작은 입자의 비산 석면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7년부터 초·중·고 66개교, 630건을 검사했다. 자치구에서도 학교 석면 해체 작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광주에서 석면이 설치된 학교는 320곳이며, 아직 해체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140여개 학교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인공지능산업 보안분야까지 확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업무협약

광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인공지능산업을 보안 분야로까지 확장한다.

광주시는 17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광주지역사무소 개설 추진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조현숙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업무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보안기술 공동개발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 적용 보안제품 상용화 및 사업화를 지원해 광주가 성공적인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광주사무소 개설 등 광주형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보안 연구

기반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보안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사이버 보안 전문교육 및 인력양성 ▲인공지능 기반 보안제품 상용화 및 사업화 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등이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기관으로, 국가보안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설립됐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 R&D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광주 인공지능 산업의 범위를 보안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중심으로 펼쳐지는 초연결 시대 선도를 위해 보안은 핵심 요소다”면서 “연구중심 사이버보안 전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고 추진 동력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종합백서 발간

역대 국제수영연맹(FINA) 대회 가운데 ‘최다 국가 및 선수 참가’,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호평받은 ‘2019 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기록을 담은 종합백서(사진)가 발간됐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대회 준비과정에서부터 개최 과정까지 8년간의 열정과 성과를 담은 ‘종합백서’를 책자와 이동식 메모리(USB)형태로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428여 쪽 분량의 종합백서는 대회유치, 준비 및 운영, 결과에 이르기까지 총 6장으로 구성해 전 과정의 성과와 평가를 실었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각 분야별 담당자들의 에피소드도 소개됐다.

조직위는 종합백서를 중앙부처, 수영연맹, 시도별 체육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대회종합백서에는 세계수영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한, 의미 있는 광주 대회의 모든 과정을 담았다”며 “앞으로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담당자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서(웹버전)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노인연금 지급 갈수록 증가 1조원 넘어

지난 1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노인 연금 혜택이 확대되면서 전남도의 노인연금 지급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노인 인구가 매년 3만명 이상 증가하는데다 연금 규모와 혜택이 확대되면서 전남도, 시·군의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17일 “지난 1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노인연금 혜택이 확대돼 지난해보다 13.7% 늘어난 1조 102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노인 연금 예산은 지난 2018년 8085억원, 2019년 9693억원 등 매년 16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노인 연금 예산은 국비 86%, 시·군비 11%, 도비 3%의 비중으로 부담하고 있다.

국가 지원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한 전남도, 시·군의 부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수백에 없다. 전남도 노인 연금 수혜 비율 역시 지난해 말 기준 81.2%로 전국 평균 66.3%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저소득 고령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는 의미다.

한편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하위소득 ▲40% 미만 시 월 최대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 ▲40~70% 시 최대 25만원(부부가구 40만원)을 지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